

『交隣須知』筆寫本과 刊行本の 일본어 어휘 비교*

— 初刊本에서의 어휘 수용 과정을 중심으로 —

片 茂 鎮**

(e-mail : mjpyon@dku.edu)

目 次

1. 머리말
 2. 『交隣須知』의 異本과 《日本語語彙對照表》
 3. 標題語의 語構成과 韓國語譯과의 관계
 4. 각 異本 間의 표기상의 특징
 5. 初刊本에서의 어휘 수용 과정
 6. 맺음말
-

1. 머리말

『交隣須知』는 江戸時代부터 明治時代に 걸쳐 널리 사용된 일본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국어학습서로, 약 3000여개의 漢字語를 類義別로 나누어 그것과 관련한 한국어의 短文을 主文으로 하고, 그것에 對譯의 일본어를 붙여 작성한 일종의 韓日語 對譯 用例集이라고 할 수 있다. 『交隣須知』는 18세기 초에 對馬島의 藩儒 雨森芳洲에 의하여 당시 부산 草梁에 있던 倭館에서 편집된 것으로 추측되는데,¹⁾ 本書는 주로 對馬島의 朝鮮 通詞들 사이에서 한국어의 초급

* 본 연구는 2009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단국대학교 교수 일본어학

1) 筆者는 기본적으로 『交隣須知』는 芳洲著者說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삼는 것이 芳洲 자신이 직접 작성한 『詞稽古之者仕立記録』의 기록이다. 享保 21年(1736)의 『詞稽古之者仕立記録』 마지막에는 芳洲가 직접 稽古通詞들에게 남기는 다음과 같은 메모가 있다.

학습서로 180여 년간 筆寫本으로 전해지다가 명치14년(1881)에 이르러 비로소 活字本으로 간행되게 된다. 그와 같은 성장 배경에 기인하여 『交隣須知』는 많은 異本이 존재하는데, 이와 같은 다수의 이본의 존재는 언어의 통시적 연구 자료로 절호의 가치성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寫本類에서 刊本類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노출된 언어현상의 차이들은 바로 한국어와 일본어의 언어사적 연구 자료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本稿에서는 筆寫本の 일본어가 刊行本에서 어떤 식으로 채택되었는가를 비교·분석하여, 『交隣須知』의 성장 배경과 관련하여 本書를 일본어의 역사적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交隣須知』의 異本과 《日本語語彙對照表》

지금까지 알려진 『交隣須知』의 諸本은, 寫本으로서 古寫本類의 《原祖本系》와 增補本類의 《增補祖本系》, 그리고 刊本類의 異本들이 있다. 이하의 < >는 본고에서 다루는 異本の 약칭이다.

【寫本】

《原祖本系》

1. 交隣須知 4卷 書寫期 不明(19世紀初?)、京都大學 所藏；苗代川本 ⇒<苗>
2. 交隣須知 卷一(部分) 書寫期 不明、卷四(部分) 1852年寫 ⇒<沈>
卷三 文政10年(1827)寫 ⇒<文>、天保13年(1842)寫 ⇒<天>
沈壽官家 所藏；沈壽官本
3. 交隣須知 卷一(部分) 書寫期 不明、Aston舊藏；Aston本 ⇒<あ>

雨森東五郎より言葉稽古之者共へ申渡候書付之覺

覺

朝鮮言葉稽古之仕様、某より令指圖候様ニと被仰付候、某義三十五歳之時、參判使都船主ニ而朝鮮へ初而罷渡、彼地之様子令見聞候處、重而信使有之候節朝鮮詞不存候而者、御用可難弁候と心付候付、罷歸候已後早速朝鮮言葉功者之衆中ニ下稽古いたし、翌三十六歳之時、朝鮮江罷渡丸年二年令逗留、交隣須知一冊、酉年工夫一冊、乙酉雜錄六冊、勸懲故事諺解三冊仕立、其外淑香傳二、李白瓊傳一冊自分ニ寫之。(『芳洲外交關係資料書翰集』雨森芳洲全書三 p.308)

즉, 芳洲가 36세(1703년) 때 朝鮮(倭館)에 건너가 2년간 체류하면서 「交隣須知」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이다. (편무진(2005) pp.91-94 참조)

《增補祖本系》

1. 增補交隣須知 1卷(卷四) 小田幾五郎 修正(1795年)、東京大學史料編纂所 所藏 ; 小田本 ⇒<小>
2. 交隣須知 卷一 弘化3年(1846)寫、卷四 天保13年(1842)寫 ⇒<ア>
卷二(部分) 1885年頃寫 ⇒<會>、Aston舊藏 ; Aston本
3. 交隣須知 卷一 白水福治 書寫 書寫期 不明(1854年頃?)、對馬歷史民俗資料館 所藏 ; 對馬本 ⇒<對>
4. 交隣須知 3卷(卷二三四) 中村庄次郎 書寫(1868年~1873年) 前間恭作 摹寫、서울대학교 所藏 ; 서울大本 ⇒<ソ>
5. 交隣須知 1卷(卷三) 書寫期 不明、中村幸彦氏 所藏 ; 中村本
6. 交隣須知 2卷(卷二三) 書寫期 不明(1880年頃?)、東京大學小倉文庫 所藏 ; 濟州本 ⇒<濟>
7. 交隣須知 3卷(卷一三四) 久和馬壽 書寫(1873年)、長崎大學武藤文庫 所藏 ; 武藤本 ⇒<武>

【刊本】

1. 交隣須知 4卷 浦瀨裕 校正增補 明治14年(1881)印行 ; 初刊本 ⇒<初>
2. 再刊交隣須知 4卷 浦瀨裕 校正增補 明治16年(1883)刊行 ; 再刊本
3. 交隣須知 4卷 寶迫繁勝 刪正 明治16年(1883)出版 ; 刪正本
4. 校訂交隣須知 1卷 前間恭作·藤波義貫 共訂 明治37年(1904)刊行 ; 校訂本 ⇒<校訂>

『交隣須知』는 당시 조선시대의 사회 및 일상생활과 관련한 한자어를 모아서 標題語로 하고 있는데, 표제어의 語構成은 漢字 3자로 이루어진 단어도 일부 존재하나,²⁾ 기본적으로는 漢字 1자 혹은 2자로 이루어진 속어이다. 이 표제의 한자어에 해당하는 한국어 단어나 표현을 사용하여 用例文을 만들고, 거기에 對譯으로 일본어문을 붙여 본문이 형성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제어에 대하여 일본어의 어휘가 寫本類와 刊本類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用例文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한 대조표를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이를하여 《日本語語彙對照表》³⁾인데, 이것은 『交隣須知』의 각 異本 間의 상관관계, 다시 말해서 계통적 관계를 규명하는 데에도 중요한 데이터가 된다. 대략적인 범례는 다음과 같다.

- (1) 寫本類는 苗代川本과 古寫本類 그리고 增補本類로 대별하고, 刊本類는 初刊本을 대상으로 한다.
- (2) 古寫本類와 增補本類에서, 각 異本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語形을 위에 제시하고(異本名 생략), 개별적인 경우에는 < >에 그 異本名을 제시한다.

2) 「東北風」 등. 초간본에는 「遮陽板子」(<初/二36a>)라는 4자 속어의 표제어도 1예 보인다.

3) 편무진(2004)의 학위논문 <부록-3>

- (3) 표기법의 차이(濁音, 合拗音 등)는 무시한다.
 (4) 해당하는 『倭語類解』의 어휘도 함께 제시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도출된 해당 어휘는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된다.
 卷1의 처음 부분만 제시한다.

<표1>

標題語	韓國語	苗代川本	古寫本類	增補本類	初刊本	倭語類解
[1013] 東風	동풍	コチカゼ	東風	コチ<ア> コチガゼ<對> コチ風<武>	コチ	고지가세 <上/01b>
[1024] 逆風	역풍	ギャクフ ウ	逆風	ムカウ風 逆風<ア>	逆風	무고우가세 <上/01b>
[1034] 雹/雨雹	므리	ヒノアメ	ヒノアメ	ヒノアメ	ヒャウ	히노아메 <上/02b>

표제어의 []는 항목의 고유번호로 좌측 숫자는 卷數, 우측의 나머지 숫자는 항목 順次이다(拙著 『諸本對照 交隣須知』에 의함). < >는 異本名이며 < >이 없는 경우는 다른 異本에 공통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1034]처럼 /으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 좌측은 苗代川本(혹은 苗代川本을 포함하는 古寫本類)의 표제어, 우측은 初刊本の 표제어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한국어는 苗代川本에 제시된 표제어에 대한 韓國語譯이다.

본 연구에서는 당면의 과제로 初刊本에서 對譯語로서 어떤 일본어가 채택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위의 표를 재분석하기로 한다.

- (1) 古寫本類는 對象 外로 한다.
 (2) 각 異本 間의 사소한 표기법의 차이는 무시한다.
 예) ノトカニ / ノドカニ
 ヤハラカニ / ハワラカニ
 ヲワウ / ヲヲウ
 ヲソレ / オソレ
 ケシャウ / ケショウ
 (3) 漢字에 대한 字音이나 字訓 표기는 임의적 선택 사항으로 보고 이를 동일시한다.⁴⁾
 예) フヨウ / 芙蓉

4) 이러한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가령 「明日」라는 일상적인 표제어에 대하여 對譯語로 「アス」라는 仮名 表記를 택할 것인가 漢字 表記를 택할 것인가는 編者의 임의적 판단에 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訓音(字音) 혹은 漢字라는 표기상의 차이만 가지고 異本 間의 상호 영향 관계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キタゴチ / 北ゴチ

アス / 明日

(4) 筆寫本類와 刊行本(初刊本)上の 약간의 語法の 차이는 무시한다.

예) 清イ / 清キ

セチガシカウテ / セチガシコウシテ

ウツリマシテ / ウツリテ

タチアカッテ / タチアガリテ

イツヲシテ / 揖シテ

マケレバ / マクレバ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도출된 항목은 初刊本에 해당 어휘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全 4卷에 걸쳐 약 600여개가 되며, 異本 間의 對譯 關係를 다음의 4개(i ~ iv)의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 다음의 <표2>이다.

i : 增補本類(單) = 初刊本 ii : 增補本類(複) = 初刊本
iii : 苗代川本 = 初刊本 iv : 標題語 = 初刊本

<표2>

異本 例 類型	卷一		卷二		卷三		卷四		計 610	
	131		124		219		136			
	용례수	%	용례수	%	용례수	%	용례수	%	평균%	
i	32	62	66	65	133	64	8	54	61	
ii	49		14		9		65			
iii	6	5	15	12	23	11	5	4		8
iv	41	31	25	20	53	24	56	41		29
기타	3		4		1		2			

[기타]는 i ~ iv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것에 대하여는 별도로 後述하기로 한다.

3. 標題語의 語構成과 韓國語譯과의 관계

初刊本에서의 어휘 수용 과정을 분석하기에 앞서 표제어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을 어떤 한국어로 번역하여 예문을 작성하였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標題語는 주로 漢字語 1字나 2字로 구성되었고, 韓國語文에서 명사나 동사적 표현 그리고 형용사의 語根 등을 나타내는 단어로 번역된다. 가령 苗代川本을 예로 설명하면, 표제어는 한자 1자인 경우가 대략 3분의 2를 점하고,⁵⁾ 그것이 用例文에서 한국 고유어(訓)로 번역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음으로 그 표제어를 포함하는 2자의 漢字 熟語로 나타난다. 그리고 표제어 한자가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字音 표기로 제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 [1160] 숙 이제
 [1406] 丁 장녕
 [3423] 賞 상

한편 나머지 3분의 1은 표제어가 한자 2자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인데, 이러한 한자 속어는 주로 字音 표기이고, 나머지는 다른 한자어나 고유어로 번역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 [1013] 東風 동풍
 [1462] 慧逸 헤일흐다
 [1403] 市人 시정
 [3265] 滅燈 등불 끄고

물론 이러한 標題語의 語構成과 韓國語譯과의 관계는 앞서 제시한 약 600여 개의 《일본어어휘대조표》에 의한 결과로, 3000여개에 달하는 모든 표제어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아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도 『交隣須知』의 標題語는 語構成에 있어 이와 같은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

4. 各 異本 間의 표기상의 특징

우선 표기상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標題語(漢字語)에 대하여 苗代川本에서는 對譯의 日本語로 字訓을 주로 사용하고, 初刊本에서는 주로 표제어와 동일한 漢字를 포함하는 日本式 漢字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5) 물론 苗代川本の 표제어가 初刊本에서 類義語 등으로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나,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다.

苗(古寫本類) > 增補本類 > 初刊本
 標題語(漢子語) ; 字訓 字音 漢字

이러한 경향은 특히 표제어가 한자어 2자로 이루어진 熟語일 경우에 두드러지는데, 增補本類⁶⁾에는 字訓에서 漢字로 옮겨가는 중간 단계로 그 한자에 대한 字音 表記가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경향의 상징적인 예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제시할 수가 있다.

- 예) [1421] 道士 // <苗> 도스 ヤマブシ / <增> 도우시 / <初> 道士
 [2255] 甘苔 // <苗> 감타 아마노리 / <增> 칸타이 / <初> 甘苔
 [3685] 夜叉 // <苗> 야차 야니 / <增> 야샤 / <初> 夜叉
 [4589] 迂闊 // <苗> 오활호여 트리시마라즈시테 / <增> 우쿠와ツナ / <初> 迂闊ニシテ

한편 표제어가 한자어 1자로 되어 있는 항목에서 用例文 중의 한국어가 2자 熟語의 字音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初刊本에서는 한국어 번역어를 그대로 한자로 표기되는 예가 많다. 초간본에서의 편집 의도를 잘 반영하는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약간의 예를 제시한다.

- 예) [1406] 丁 // <苗> 장덩 타っしゃ나モノ / <初> 壯丁
 [3589] 降 // <苗> 항복 코우산 / <初> 降服
 [4101] 怨 // <苗> 원망저온 우라미라시이 / <初> 怨望ニナル

참고적으로, 初刊本에서 對譯語의 일본어를 한자로 표기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삼고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표제어와 동일한 한자어를 대역어로 채용한 용례수는 약 130여개이다.

- 예) [1529] 職 // <苗> 벼슬 ツトメ / <初> 職
 [4058] 捲 // <苗> 겹고 마키아케테 / <初> 捲テ
 [2425] 芙蓉 // <苗> 부용화 フヨフクワ / <初> 芙蓉ノ花

초간본에서의 표제어와 관련한 이러한 일련의 표기 경향은, 표제어와 그것의 번역어인 한국어를 가능한 한 對譯에 반영하려는 의도의 표출로 생각된다.

6) 增補祖本系の 增補本類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편의상 異本名 표기와 동일한 방식의 <增>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5. 初刊本에서의 어휘 수용 과정

『交隣須知』의 主文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어휘를 대조 비교하는 것은 本書의 계통적 관계를 규명하는데 1차적 데이터 자료가 되는데, 일본어의 어휘 대조표도 2차적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상술한 《일본어어휘대조표》상의 增補本類에 複數로 존재하는 어휘 중 어느 異本の 語形이 초간본에 도입되었는가를 통하여 異本 間의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어어휘대조표》를 활용한 本書의 계통적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기회를 달리하여 다루기로 하고, 本稿에서는 <표2>에 근거하여 초간본에서의 어휘의 수용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i ii 類型

初刊本の 日本語 對譯語가 모든 增補本類의 寫本에 공통하는 어휘와 同一語, 혹은 우선적으로 증보본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유형(i)과, 증보본류에서 複數의 다른 語彙(語形)로 나타나고 그 중 하나의 어휘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개별적인 유형(ii)의 용례수가 6할을 넘고 있다. 이것은 初刊本을 改修할 때 寫本類 중에서도 增補本類를 많이 참조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

· i 類型的 例

- [1171] 初一日 // <苗> 초하룻날 ツイタチ / <增> 朔日 / <初> 朔日
 [2689] 豆綠 // <苗> 도록 トリノコ / <增> マメノコイロ / <初> 豆の粉色
 [3896] 外感 // <苗> 외감 カゼフキ / <增> 風邪 / <初> 風邪
 [4273] 矜 // <苗> 자랑내다가 호코tte / <增> ジマンシテ / <初> ジマンシテ

· ii 類型的 例

- [1248] 石壁 // <苗> 석벽 ビョブ / <增> ガンセキ・セキヘキ<對> / <初> 岸石
 [2396] 荊 // <苗> 가시 イドラ / <增> イドラ・イバラ<會> / <初> イバラ
 [3295] 吹螺 // <苗> 취라 카이 / <增> 호라・슈라이<武> / <初> 호라
 [4009] 坐 // <苗> 안자셔 스왓테 / <增> 스왓테・이스하tte<小> / <初> 스하tte

전체적으로는 i 유형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iv와 ii유형이 이어지는데, [1248]의 경우가 ii 유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初刊本の「岸石」이라는 對譯語는 對馬本 이외의 증보분류에 공통하는 「ガンセキ」의 한자어 표기이다. 이러한 유형으로부터 초간본에서는 <苗>나 표제어의 어휘보다 증보분류의 그것을 참조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⁷⁾ 물론 [4009]와 <표1>의 [1034]의 예처럼, 初刊本の 對譯語가 <苗> 혹은 표제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 가능한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iv 유형의 예가 많은 것은 초간본에서 한자어의 대역어를 우선한 편집 의도에 의한 자연적인 결과로 본다면, <苗>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iii 유형은 상대적으로 열세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初刊本の 對譯語는 그 출처를 우선적으로 증보분류와의 관련성에서 찾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2) iii類型

初刊本の 對譯語가 增補本類보다는 苗代川本の 일본어와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는 예들이다. 그렇지만 다른 유형들과 비교하여 1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용례수가 적다. 우선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예)[1624] 此 // <苗> 여긔 ココ / <増> 爰元 / <初> ココ
 [2636] 錦/錦緞 // <苗> 비단 キン / <増> ヲリモノ・タンモノ<武> / <初> ニシキ
 [3326] 窺 // <苗> 여어보고 ノソイテミテ / <増> ハザミミテ / <初> ノゾキ見シテ
 [3675] 甘醬 // <苗> 감장 ミソ / <増> シャウユ / <初> 味噌
 [4222] 姑 // <苗> 아직 シバラク / <増> マヅ / <初> 姑ク

標題語【錦】에 대하여 <苗>에서는 字音 표기인데 <初>에서는 字訓 表記이다. 그러나 <初>의 일본어는 增補本類의 그것보다는 <苗>와 상호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甘醬】의 한자어는 의미적으로 증보분류의 「샤ウユ」에 가깝지만 <苗>에서는 「미소」로 對譯하고 있다. 초간본에서는 그 대역어를 한자 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표제어【姑】와 관련하여서는, <苗>에서 사용된 對譯語 「シバラク」는 사전적으로 [少しのあいだ、しばし] [久しぶり] 외에 古訓으로 [かりに、かりそめ、一応]의 의미도 있다. 이 後者の 日本語 訓이 增補本類에 사용된 「마쯔」와 의미적으로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初刊本에서는 增補本の 「마쯔」가 아니라 苗代川本の 「姑(シバラク)」를 채용하고 있다.

7) 이러한 異本 間の 개별적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本書의 계통적 관계를 규명하는 한 방법이 된다.

- 예)[1600] 庶子/庶 // <苗> 셔즈 ショシ / <増> ソシ・ケッシ<武> / <初> 庶子
 [2022] 貂 // <苗> 돈피 키넝즈미 / <増> 톤피<소>·톤피<濟>
 / <初> 貂
 [3506] 草書 // <苗> 草書 / <増> 下夕書 / <初> 草書

한편 위에 제시한 예들은 初刊本の 對譯語가 苗代川本の 字音이나 字訓을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일단 iii 유형에 포함시킨 것인데, 초간본의 편집 의도에 따라 표제어의 한자어를 그대로 채택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iii 유형 안에는 이와 같은 예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初刊本이 苗代川本을 직접 참고했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여기서 『交隣須知』의 계통과 관련하여 두 번에 걸친 편집 과정을 거쳤고, 2차 편집과 관련하여 苗代川本을 포함한 古寫本類를 改修·増補한 増補祖本の 존재를 하나의 假說로 설정한 적이 있다(편무진 2005:343 참조). 결과적으로 初刊本이 주로 참조한 寫本類는 増補祖本系에 속하는 増補本類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iv 類型

일단은 初刊本の 對譯語가 標題語의 同義語나 類義語에 속하는 것으로, 어휘 선택 시 증보본류보다는 표제어나 표제어에 대한 한국어 번역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다. 전체의 약 3할을 점할 정도로 일반적인 패턴이다. 그 내용을 좀 더 세분하여 유형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1) 標題語 > 和語(字訓)

초간본에서 표제어의 漢語에 대한 일본어의訓을 채용하고 있는 예이다.⁸⁾

- 예)[1024] 電 // <苗> 므리 히노아메 / <初> 히야우
 [1155] 嚮者 // <苗> 저좁기 센쿄프 / <初> 사키니
 [1445] 翁 // <苗> 하라비 오야치 / <初> 치치
 [1474] 拙 // <苗> 졸망(卒妄)이로다 / <初>拙키モノデアル
 [3528] 刀本 // <苗> 칼수메 시테 / <初> 칼슴에 나카고
 [3742] 咽塞 // <苗> 목이 메워 노ンドガツマツテ / <初> 咽ガ塞テ

[1445]의 표제어【翁】에 대한 한국어訓 ‘하라비’의 對譯으로서 「オヤヂ」 보다는 「チヂ」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초간본에서는 표제어에 대한 유

8) 그리고 다음의 경우처럼 표제어를 일본어로訓讀한 예도 보인다.

[2023] 山獺 // <苗> 산달 타ヌ키 / <初> 山ウソ

의어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가능한 한 표제어의 原義에 가까운 말을 사용하려 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또한 [3528]의 【刀本】에 대해서도 <苗>에는 古訓 「しで」로 되어 있으나 <初>는 「ナカゴ」이다. 이 「シデ」와 「ナカゴ」에 대하여 일본어 사전에는, 「しで(四手、垂)」는 [槍の柄につけ、槍印とするヤクの毛で作った払子のようなもの] (《大辞林》)인 반면, 「なかご(中子)」는 [刀劍類の、柄に入っている部分] (《大辞泉》)으로 설명되어 있다. 역시 의미적으로 표제어 【刀本】에 가까운 것은 「ナカ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은 항목 [3074]의 표제어 【漱之】의 用例文과 對譯文을 대조하기 쉽게 모아서 제시한 것이다.

<苗/306a>	漱之	양치덜히게 물 썰 오느라 ハミガクヨウニ ミツ クンデ コイ
<ソ/331a>	漱之	양치덜히게 물 썰 오느라 ヤウジツカウヤウニ 水 クンデ コイ
<初/320b>	漱之	양치(養齒)질히게 물 썰 오느라 ロス、グヤウニ 水 クンデ コヨ
<校訂/236>	漱之	양치(養齒)질히게 물 썰 오느라 うがい水をくんで來い。

본래 ‘양치질’은 ‘이를 닦고 물로 입 안을 가시는 일’로, 對譯의 일본어로는 <苗>의 「ハミガク」보다는 <初>의 「ロス、グ」가 本意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표제어 중의 한자 「漱」의 訓도 「くちすすぐ、うがう」이다. 증보분류에 나오는 「ヤウジツカウ」의 「ようじ(楊枝)」에는 「爪楊枝」이외에 「齒ブラシ」의 의미도 있어 「ハミガク」에 가까운 의미로 판단된다. 校訂本에는 「うがい」로 되어있다.

2) 標題語 > 和語(漢字)

기본적으로 표제어가 漢字 두 자 이상의 한자 속어일 경우에는 동일한 한자어나 그것을 포함하는 語句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① 표제어와 동일한 漢字

- [1597] 婢 // <苗> 종녀 下女 / <初> 婢
 [4116] 慷慨 // <苗> 강개혼 キジョフナ / <初> 慷慨ノ
 [4251] 依然 // <苗> 의연히 ドウヤラ / <初> 依然トシテ
 [4256] 躊躇 // <苗> 주저히다가는 グドグドシテハ / <初> 躊躇シテハ
 [4581] 謀害 // <苗> 모해 ハカリガイ / <初> 謀害
 [4735] 忽忽 // <苗> 훌훌히 イソガシウ / <初> 忽忽ト

② 표제어를 포함하는 漢字熟語

- [1326] 灣 // <苗> 물구뵤 ミツノマワリ / <初> 水灣
 [1406] 丁 // <苗> 장덩 타っしゃ나モノ / <初> 壯丁
 [1476] 劣 // <苗> 용닐호여 브초우호フニシテ / <初> 庸劣ニシテ
 [1727] 腸 // <苗> 간당 키모하라ワタ / <初> 肝腸
 [2289] 儲 // <苗> 제축미 요フ진마이 / <初> 儲畜米
 [3040] 袍 // <苗> 도포 하루리 / <初> 道袍
 [3479] 冊 // <苗> 칩수 쇼모쯔카즈 / <初> 冊數
 [4101] 怨 // <苗> 원망저온 우라미라이 / <初> 怨望ニナル
 [4464] 切 // <苗> 곤절이 네ngo로니 / <初> 懇切ニ
 [4480] 順 // <苗> 순호게 스나ヲニ / <初> 順ニ
 [4555] 會 // <苗> 모와 아쯔마tte / <初> 會シテ

초간본에서 표제어인 한자를 그대로 쓰거나 표제어가 포함된 한자숙어를 對譯語로 채택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對譯語인 일본어 한자는 표제어에 대한 번역어, 다시 말해서 표제어에 대한 한국어 용례문 중의 해당 어휘를 한자어 표기로 나타나는 예들이 많다. 따라서 「肝腸」처럼 한국식 한자어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도 있다. [1326]의 「水灣」은 일본의 한자어는 아니지만 표제어 한자의 훈에 해당하는 한국어 ‘물구뵤’에 영향을 받은 漢字熟語로 보인다. 즉, ‘물’은 「水」, ‘(물)구뵤’는 「灣」. 校訂本에는 「灣になつてゐる處」(<校訂/039>)이다.

3) 標題語 > 日本式 漢字語

당시 보다 일반적이고 현대적인 일본식 한자어가 사용된 예이다.

- 예) [1154] 俄者 // <苗> 이욱이 니와카니 / <初> 先刻
 [1542] 畫員 // 화원 <苗> 에시 / <初> 畫工
 [3446] 査覈 // <苗> 사혁 센키 / <初> 糾問
 [3499] 印 // <苗> 인적 인 / <初> 印判
 [3650] 淸醬 // <苗> 곤장 타마리 / <初> 醬油
 [3654] 酪酪 // <苗> 타락 우시노치 / <初> 牛酪

[3446]의 【査覈】에 대한 對譯語로는, 「取り調べる」를 공통요소로 하는 「セング(詮議)」와 「糾問」중에서 後者が 보다 현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3654]의 【酪酪】에 있어서는, ‘우유’를 의미하는 한자숙어는 「酪酪」임으로 표제어의 「酪」는 「駝」자의 오류로 보인다. 초간본에서는 「ウシ(牛)」의 「チ(乳)」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한자어에 해당하는 「牛酪」을 쓰고 있다. 증보본류에서는 「ヒツジノ血」로 對譯하고 있는데, 「ウシ」와 「ヒツジ」의 차이는 별도로 치

더라도 「血」의 「チ」는 아니다. 그리고 [3499]의 ‘도장’의 의미를 가지는 「印判」 역시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한자어로 볼 수 있겠다. 明治後期の 韓國 資料⁹⁾에도 그 사용례가 보인다.

- 印判(インバン)ニ 印肉(インニク)ヲ 能(ヨ)ク ツケテ
투서(套書)에 인주(印朱)를 잘 찍어 (『日韓通話』 1893, p.87)
- コノ廣告ハ印判師ニ頼マセウ
이 廣告는 印判師의게 구청하겠소 (『獨習 日語正則』 1907, p.188)

4) 標題語 > 당시 일반적인 日本語

初刊本에서 對譯語 선택에 있어 당시 보다 일반적인 단어나 표준어적인 표현을 우선하는 경향은 和語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예)[1472] 愚 // <苗> 어리게 ヲロカシウ / <初> オロカナ
- [1770] 弱 // <苗> 질약하니 ムマレツキヨワイニヨリ / <初> 身が弱イニヨリ
- [3065] 髭 // <苗> 돌이 ネゾエ / <初> カモジ
- [3140] 勺 // <苗> 자 シャ / <初> 杓子
- [3268] 挑燈 // <苗> 등잔 도도고 스ズキヲカキタテテ / <初> トモシビカキ立テ
- [3298] 喇叭 // <苗> 나팔 ヲヲシウライ / <初> ラッパ
- [3763] 燒 // <苗> 술아 クベテ / <初> ヤイテ
- [4156] 誠 // <苗> 경계하는 イケンスル / <初> イマシメタニ
- [4332] 躁 // <苗> 조급히 세세마세키니 / <初> サハガシウ

[3268] 【燈】의 訓은 「トモシビ」가 일반적이며, [3298]의 「ラッパ」 또한 마찬가지다. [3065]의 「네즈에」는 「네즈로이·네즈로에(寢揃)」와 관련이 있는 訓으로 보이나, 표제어 【髭】의 訓은 일반적으로 「카모지」이다. [4332] 【躁】의 訓 또한 「さわがしい」이다. 初刊本에서 표제어의 의미에 충실한 對譯語를 채용했는데, 동시에 寫本類에 사용된 方言的인 어휘를 당시의 표준어적인 것으로 교체한 예라고 할 수 있다.¹⁰⁾ 또한 다음과 같은 예들도 포함된다.

9) 이 「한국자료」에 대하여, 筆者는 넓은 의미로 「19세기 말에서부터 20세기 중엽에 걸쳐 한국과 일본에서 편찬된 兩國語의 學習書로서, 對譯 形式의 本文이나 例文을 가지는 문헌자료」로 정의하였다.(편무진2001)

10) [2093] 【螺】의 對譯語가 苗代川本과 增補本類에서 「サザイ」로 되어 있던 것을 <初>에서 「サザエ」로 교체한 것도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 <苗/二55a> 交織 교직을 어더 쓰려 ㅎ니 구ㅎ여 주옵소
 ソンナイヲ エテ ツカヲフトヲモフニヨリ モトメテ 下サレ
- <ソ/三15a> 綜綿 섯나히를 어더 쓰려 ㅎ니 구(求)ㅎ여 주옵소
 ソンナイヲ 求テ ツカイトウゴサルニヨリ アツラエテ 下
 サレマセイ
- <武/三13a> 綜綿 섯나히를 어더 쓰려 ㅎ니 구ㅎ여 주옵소
 ソンナイヲ 求テ ツカイトウゴザルニヨリ アツラヘテ 下
 サレマセイ
- <初/三09b> 交織 교직(交織)을 어더 쓰랴 ㅎ니 구(求)ㅎ야 주옵쇼셔
 カピタンヲ 求メテ ツカヒタウゴザル故 アツラエテ 下サレヨ
- <校訂/244> 交織 교직(交織)을 엇어 쓰랴 ㅎ니 구(求)ㅎ여 주시오
 交ぜ織りがほしいから買って下さいまし。

[2642] 항목인데, 사본류에는 표제어 【交織】의 대역어로 ‘섯나히’의 音注表記인 「ソンナイ」가 사용되고 있다. 이것이 초간본에서 「カピタン」으로 교체되었다. 이 「カピタン」은 江戸時代に 당시 나가사키(長崎)의 네덜란드(オランダ)商館長이 지참하였다고 하는 絹織物の 한 종류로,¹¹⁾ 초간본에서의 이와 같은 대역어를 통하여 당시 유행했던 新造語나 外來語도 적극 도입하려고 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교정본에는 「交ぜ織り」이다.

- <苗/三57b> 邊 변으로 풀면 감시 적어도 ㅼㅼㅎ외
 ハクリテハラエハ ダイハ スクノウテモ シッカリトゴサル
- <初/二45b> 邊 변(邊)으로 풀면 감시 적어도 변 되옵네
 利子付ニシテ ウレバ 代價ハ ヤスクテモ 便利ニナリマス
- <校訂/225> 邊 아모리 경변(輕邊)으로 어더도 오래 감지 못ㅎ면 변리(邊利)가 본전(本錢)이 되느니
 どれ程安い利息で借りても永く返さないと利息が元金ほどになる。

[3795] 항목의 【邊】. ‘邊利’의 축약형 「邊」이 <苗>에서는 「ハクリ(薄利?)」로 對譯되었다. 이것이 초간본에서는 「利子付」라는 복합어로 교체되었는데, 이 또한 보다 이해하기 쉬운 당시의 일반적인 어휘의 선택으로 보인다. 이것이 교정본에서는 「利息」으로 對譯되었다. 韓國資料에는 ‘邊利’에 대하여 「利足(リソク)」나 「利子」의 일본어가 사용된 예가 보인다.

- 利足(リソク)가 多(オオ)クテ 負債(フサイ)ニ ナリマシタ
 變理(邊理)가 만하 빚시 되엿소 (『日韓通話』 p.112)

11) 『広辞苑』 参照.

- 外國から資金を借りて事業を興さうと思っても利子の高いのには實に閉口です
外國에서 資金을 얻어 事業을 니르고져 ㅎ여도 邊利가 빗싼 것은 춤 기막혀
오 (『獨習 日語正則』 p.181)

[3140]의 경우, 본래 표제어【勺】에는 용적·용량의 단위를 나타내는 의미와 ‘구기(자루가 달린 술 따위를 푸는 용기)’의 의미가 있는데, 일본어로서 ‘구기(국자)’의 의미로 사용되는 「シャ」는 古訓에 속하는 것으로, 명치시대에는 「杓子」가 일반적이었던 것 같다. 寫本類에서는 「シャ」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刊本類에는 「杓子」로 되어 있다.

- <苗/三11a> 勺 자로 물국을 찌다가 마술 보고 쓸허라
 シャテ シタヂヲ スクフテ アジヲ ミテ タキラカセ
- <ソ/三35b> 勺 자로 몹국을 찌다가 맛술 보고 쓸허라
 シャテ シュルヲ クンデ 味ヲ 見テ タギラセ
- <初/三24a> 杓子 자로 물국을 찌다가 마술 보고 쓸너라
 杓子テ シルヲ 스크우테 味ヲ ミ테 타기라세

5) 標題語 > 派生語

표제어에 대한 파생적 어휘를 선택한 예가 일부 보인다. 표제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어휘에 해당한다.

- [2526] 廳 // <苗> 청 야크쇼 / <初> 대텅 大廳
- [3191] 鋸 // <苗> 톱 노코 / <初> 오가鋸
- [2201] 祿 // <苗> 녹 치키요 / <初> 호군녹 護軍祿

이상과 같은 경향으로 판단하건대, 초간본에서 대역 어휘를 채택하는데 있어서 우선은 증보본류의 그것을 참조하고, 그 나머지는 표제어와 의미적으로 같거나 유의어 관계에 있는 일본어를 수용하려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그 배경에는 기존의 증보본류의 일본어에 비교하여 당시의 보다 표준적인 어휘를 반영하려는 편집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보다 자연스러운 對譯語를 의식하여 編者가 의도적으로 어휘를 선택한 예라고 할 수 있다.

- <苗/三66b> 瘧 기미는 쉬이 곳치면 도호니라
 イホウハ ハヤフ ナラセハ ヨウコサル
- <ソ/二74b> 瘧 기미는 쉬이 곳쳐야 벗쳤지[치] 아니ㅎ오니
 イボハ ハヤク ヤウゼウシテコソ ヒロガリマセヌ
- <初/二53b> 瘧 점백이는 보기가 흉(凶)허니라

ホヤケハ 見カケガアシイ
 <校訂/116> 痣 점(點)박이는 보기가 흉(凶)히외다
 あぎは見苦しいものだ。

[3919] 【痣】의訓은「あぎ・ほくろ」로 <苗>의 ‘기피’(肌にできるシミ)와는 약간 의미가 다르다. 對譯의 일본어「イボ(疣)」는 ‘사마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初>에서는 이 ‘기피’가 ‘점백이’로 수정되었다. 한편 그 對譯語「ホヤケ」는 [火に焼けたようなあぎ] (《日葡辞書》)라는 의미이다. 寫本類에서 對譯의 불일치를 의식하여 보다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대역어로 수정한 예로 판단된다. 「ホヤケ」는 표제어 【痣】의 類義語로 보아야 할 것이다. 校訂本에서는 「あぎ」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편집 의도는 다음 (4)의 기타로 분류된 일부의 용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4) 기타로 분류된 對譯語

주로 표제어와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는 對譯語를 초간본에서 채용한 예인데, 그 예는 10개 남짓이다.

- [1276] 窞 // <苗> 우물 못고 アナヲホッテ / <初> 사시키케ヲ結ンデ
 [1425] 傀 // <苗> 광대 칼ワサ / <初> 아야ツリ
 [1583] 弟嫂 // <苗> 아이 안희 ヲトノウチカタ / <初> 적근 아지먼님 兄嫂サマ
 [2117] 鱸魚 // <苗> 전어 우나키 / <初> ฟカ
 [2543] 階 // <苗> 섬 키사하시 / <初> 섬돌 簷壇
 [2576] 陪 // <苗> 비목 ツホガネ / <初> 木ノ船釘
 [2583] 材 // <苗> 냇 키 / <初> 장나무 マルタ
 [3224] 鑿 // <苗> 요령 ツコム / <初> フウリン
 [4148] 嘲弄 // <苗> 조롱 ナブル / <初> 아야ツル
 [4406] 殘 // <苗> 잔히여 스이비시테 / <初> 잔망히야 스사비테

[1276] 항목. 한국어의 ‘움’은 ‘땅을 파고 위에 거적 따위를 얹어 비바람이나 추위를 막아 겨울에 화초나 채소를 넣어 두는 곳’으로, 이 단어의 관용구로서 ‘움을 만들다’라는 의미로 ‘움(을) 묻다’가 사용된다. 이 ‘움’은 일본어의 「あなぐら(穴蔵)」「地下に穴を掘って物を貯える所」(《日葡辞書》)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초간본에서 「サシカケヲ結ンデ」로 對譯하고 있다.

<苗/—20b> 窞 날이 차면 짜히 우물 못고 자옴느니
 (日)(寒)(地) アナヲホッテ ネマスル

- <初/一21a> 窟 날이 차면 언덕 밋티 움을 못고 잔다 허옵네다
日ガ サムケレバ キシノ 下ニ サシカケヲ結ンデ ネルト 云
ヒマス
- <校訂/034> 窟 날이 치우면 언덕 밋헤 움을 못고 잔다 ㅎ오
寒いと崖の下に穴倉を作って寝るそうでございます。

일본어의 「サシカケ」는 [上に覆いかけること] (《大辞泉》)의 의미로, 움을 묻고 그 위에 덮을 것을 엮어 덮고 잔다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교정본에서는 「穴倉を作って寝る」로 되어 있다.

[1425] 항목. <初>의 「アヤツリ」는 표제어 【傀】의訓인데, 이것은 의미적으로 ‘광대’와는 거리가 있다. 이 표제어에 대하여 증보본류에서는 「カブキ, キャウゲン」을 쓰고 있다. 초간본의 校正者인 浦瀬裕는 증보본류의 「カブキ, キャウゲン」과 관련 있는 「操り芝居」나 「操り人形」를 연상하여 「アヤツリ」라는 훈을 사용한 것일까. 한편 <初>에서는 표제어가 【優伶】로 바뀌어져 있는데, 이것은 ‘배우, 광대, 무희’를 의미하는 「伶優」(れいゆう)와 동의어로 보아야 할 것이다.

[2117] 항목. 표제어 【鱸魚】에 대하여 <苗>에서는 「うなぎ」이다. 이 「うなぎ」는 『倭語類解』에도 ‘우나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初>에서는 ‘상어’의 별칭인 「フカ(鰻)」로 고쳐져 있다. 이 「鱸魚」는 한국에서는 보통 ‘철갑상어’를 가리키는 말로, 일본에서는 「かじき」(旗魚; 청새치), 「うみへび」(海蛇; 바다뱀), 「うつぼ」(鰻; 곱치)나 「うなぎ(鰻)」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다(『新明解 漢和辞典』 참조). <初>의 「フカ」는 韓國語的 語義를 고려한 對譯으로도 볼 수 있겠으나, 예문에서 사용된 문맥상 의미는 「うなぎ」와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 <初/二09b> 鱸魚 전어(鱸魚)를 장(場)에 가 사서 반찬(飯饌) 허여라
フカヲ 市ニ イテ 買テ サイニ セヨ
- <校訂/087> 鱸 장(場)에 가 전어(鱸魚)를 사서 반찬(飯饌) ㅎ여라
市に往ってこのしろを買って菜にしろ。

‘場에 가서 사는 찬거리’라고 한다면 ‘상어’보다는 ‘뱀장어’가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것이 교정본에서는 「このしろ」로 수정되었다. 이 「このしろ」는 ‘전어(錢魚)’를 의미한다.

[2543] 항목. 한국어의 ‘섬(=섬돌)’은 ‘집채의 앞뒤에 오르내릴 수 있게 놓은 돌층계’로 ‘석계(石階)·석단(石段)’ 등과 같은 의미이다. 일본어의 「きざはし」도 비슷한 의미로 ‘계단’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初>에서 「簷壇」으로 對譯되

어 있다. 이 「簷」자는 ‘처마’의 의미로, 「簷壇」을 ‘처마 밑의 단’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것 같다. 한국의 古辭典類에는 ‘집기슭 첨’으로 나와 있다(《新增類合(1576) 상:23》). 再刊本에는 「簷ウケノ 石ギハニ」로 對譯되어 있으며(<再/二35a>), 교정본에는 「石段」이다(<校訂/197>).

[2576] 항목. ‘배목’은 ‘문고리를 걸거나 자물쇠를 채우기 위하여 둥글게 구부러 만든 고리 걸쇠’로 古辭典類인 《訓蒙字會(叡山文庫本)(1527)》에 그 어휘가 보인다. 한편 일본어의 「ツホガネ」는 [開き戸の釣りに開閉のために打つ金具] 로 비슷한 의미인데, 이것이 <初>에서 「木ノ船釘」로 교정되었다.

- <苗/二50a> 陪 비목이 실치 아니호니 저모라도 의[위]심것다
 ツホガネガ 丈夫ニナクテ ジョフヲヲロシテモ ウタカワシイ
 <初/三03a> 陪木 비목(陪木)을 잘 박아야 줌기지 아니호니니
 木ノ船釘ヲ ヨク 打テコソ 沈マヌ

이 「船釘(ふなくぎ)」는 글자그대로 [和船用の和釘の一種] 으로(『大辭泉』) 선박용으로 사용되는 나무못으로 보인다. <初>의 용례문도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박는 용도로 되어 있다. 증보본류에는 「サシガネ」.

[2583] 항목. 표제어 【材】에 대하여 <初>에서는 ‘장나무’(長나무)로 고쳐 쓰고, 그 對譯으로 「マルタ」를 붙였다. 단순한 ‘나무’가 아닌 ‘재목’을 의도한 듯 싶다. 증보본류에서는 같은 ‘장나무’에 「サイモク」로 對譯하고 있다. 한편 교정본에서는 표제어를 【杖】로 고쳐 쓰고 있으며, 對譯語도 「丸太」로 한자표기하고 있다(<校訂/194>).

[3224] 항목. 표제어 【鑊】의訓은 「どら」. <苗>에는 2개의 用例文이 있어 ‘광중’에 대한 對譯語로 「ドラ」가 사용되고 있으나, 다른 하나의 예문에 나오는 ‘요령’의 對譯語는 「ツコム」이다. 이 「ツコム」가 구체적으로 <初>에 나오는 「フウリン」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樂器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이 「フウリン」이 「風鈴」을 가리킨다면, 「鑊(ドラ)」와는 ‘鐘’ 모양을 하고 있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혀’(舌)의 유무나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는 도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증보본류에는 「トッコ」로 되어 있다.

[4406] 항목. 여기서 「殘」은 단순한 「のこる」의 의미가 아니라 「すいび」(衰微;衰えてかすかになること)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苗/四28b> 殘 잔하여 이제는 볼 거시 업니니
 スイビシテ イマハ ミル モノモ ナイ
 <初/四30b> 殘 잔망(殘亡)하야 이제는 볼 써시 업데
 スサビテ 今ハ ミラレマセヌ

要 旨

本稿では、『交隣須知』の写本類における日本語が刊本においてどのように採択されたかを比較・分析することにより、本書の成長と背景に関わる一問題を考えてみた。その結果、初刊本において対訳の語彙を採択する際、まず増補本類のそれを参照し、次は標題語と意味的に同じか類義の関係にある日本語を取り入れようとした態度がうかがえる。また、標題語に対する日本式の漢字語や字訓を対訳語として積極的に導入しているのだが、その背景には、既存の増補本類の日本語と比べて、当時のより一般的で標準的な日本語を反映しようとする編集意図があったものと思われる。

キーワード：交隣須知、韓國資料、對譯語、일본어어휘대조표

투 고 : 2010. 2. 28

1차 심사 : 2010. 3. 13

2차 심사 : 2010. 3. 27